

보성군, 6개 분야 88개 제도 개선... “복지 우선”

‘달라지는 제도 시책’ 발간 보성형 일자리 사업 추진 등 “바뀐 제도·시책 홍보에 최선”

보성군이 군민들이 혜택을 누리고 즐길 수 있도록 올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들을 한 번에 담아냈다.

보성군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정리한 ‘2023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일자리·농림·해양·인구·관광·안전 등 6개 분야에서 바뀌는 88개 제도가 담겼다.

일자리·경제 분야에서는 △보성형 노인일자리 사업이 신규로 추진된다.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월 30시간 활동 시 27만원을 지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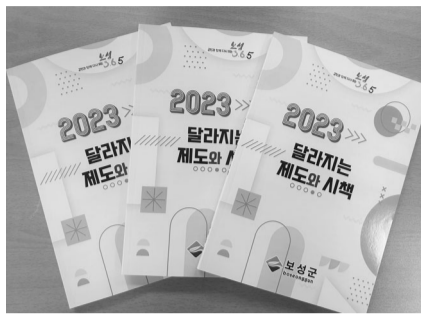
지방세 부담도 줄어든다. 주택 재산세

부과 제도 개선을 통해 1주택자의 경우 부동산 보유세가 2020년 수준으로 완화된다. 부동산 취득세는 과세표준이 실거래가로 변경된다.

농림·축산 분야에서는 경영비 절감,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경쟁력 향상에 초점을 맞춘 지원 제도가 시행된다.

보성군 자체 사업으로 6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통식품 융복합 활성화 지원 사업이 시행된다. 보성군 소재 전통식품 관련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를 준비 중인 농업 법인·단체가 대상이며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각지대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직불제 지급 요건인 ‘과거 직불금 수급실적 요건’이 삭제돼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해양·환경·산림 분야에서는 조기폐차 지원 대상 차량이 5등급 경유차에서 4등급 경유차 및 건설



보성군에서 발간한 ‘2023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보성군 제공

기계까지 확대된다. △청년어촌 정착 지원금이 10만원씩 인상되며 △탄소포인트제도 확대 시행된다.

관광·문화·체육 분야는 △좋은 책 도서 구입비 지원 사업은 본인부담금이 기존 60%에서 50%로 변경되며 지원율이 향상됐다. 저소득층 유·청소년 및 장애인 스포츠 참여를 위해 실시하는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은 기존 8만5000원에서 9만5000원으로 지원비가 향상됐으며 지원 기간도 10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됐다.

보건·인구·여성 분야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인상과 선정기준 완화가 눈에 띈다. 부모급여 신설로 만0세의 경우 최대 7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안전·건설·행정 분야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이 주요 이슈다.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금의 30% 범위 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10만원을 기부할 경우 전액 세액공제되며, 3만원 상당의 답례품이 증정된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주민들이 새로운 시책을 알고,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시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unji.kim@nilbo.com

용기공원에 주차장 조성·개방 여수시, 학동 시청사 인근

여수시가 학동 시청사 인근 용기 공원 주변에 주차장 45면 조성을 마무리 하고 개방했다.

19일 여수시에 따르면 용기공원은 상가와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 있어 인근 주민들과 상가로부터 주차장 부족에 따른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여수시는 공원 이용객의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민원 해소를 위해 작년 5월부터 이달 초까지 7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주차장 45면을 조성했다. 공원 가장자리 토사 유실 우려가 있는 비탈면도 정비했다.

여수=이경기기자

광양항 동서측 배후단지 확충 여수광양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박성현)는 광양항 동·서측배후단지 확충을 위한 공사를 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항만공사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양항 항만배후단지 내 유휴화되거나 활용도가 낮은 공공부지의 활용을 위해 추진한다. 항만 배후단지 개발계획 변경에 따라 녹지, 공원 주차장, 도로 등 시설을 복합물류 및 제조시설 용지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공사 기간은 12개월로 2024년 상반기 준공 예정이며 20만㎡의 복합물류 부지를 추가 조성해 배후단지 내 기업이 추가 입주하는 복합 산업 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항만 공사는 또 배후단지 추가 조성사업인 ‘광양항 북측배후단지 조성공사’를 오는 6월 착수해 배후단지 용지난을 해결할 계획이다. 광양=안영준기자

저소득 중증장애인 주거편의 지원 장흥군, 자체 예산 1억원 투입

장흥군은 ‘2023년 저소득 중증장애인 주거편의 지원사업’을 중점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저소득 중증장애인 주거편의 지원사업’은 중증장애인의 이동 편의 지원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장흥군은 이번 사업에 자체 예산 1억원을 투입한다.

사업대상은 장흥군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 중증장애인으로 가구 당 최대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사업 내용은 안전손잡이, 출입구 경사로 및 계단 설치, 화장실 개보수 등 주택 내·외부의 편의시설 설치와 주택 개보수 등이다.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 발굴을 위해 읍면 행정복지센터 복지담당 공무원이 가구방문을 실시할 계획이며, 생활정도 및 지원 시급성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김성 장흥군수는 “장애인 복지실현과 편의증진을 위해 계속 지원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전환기자

‘구례 고로쇠’ 수액 채취 개시

구례 고로쇠 수액 채취가 본격 시작됐다.

19일 구례군에 따르면 구례 고로쇠는 지리산과 백운산 등 해발 600m~1000m 이상 고지대 계곡에서 자생하는 고로쇠 나무에서 채취한다.

구례군 수액 채취 면적은 지리산과 백운산 일원 1만1000ha이며 250 농가가 연간 54만 l를 생산해 18억원의 소득을 창출하고 있다.

전남도 보건환경연구소 수액 성분 조사 결과 고로쇠 수액이 일반 생수에 비해 칼슘, 마그네슘, 포도당, 미네랄 등이 풍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로쇠수액은 우수(19일)와 경칩(3월 5일) 사이가 가장 맛이 좋은 시기로 알려져 있다.

수액을 채취하고자 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채취하다 적발될 때는 ‘3년 이하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구례=김상현기자



지난 16일 순천 남초등학교 내 세대공감 비타민센터에서 ‘2023 정서로봇 순봇 체험회’가 진행됐다. 순천시 제공

순천시, 정서로봇 체험회...“순봇 만나 반가워”

장애·비장애인 디지털 평등 지향 4차산업 기술 활용 VR체험 등

순천시는 지난 16일 순천 남초등학교 내 세대공감 비타민센터에서 ‘2023 정서로봇 순봇 체험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주관하고 순천시가 주최한 이번 체험회에는 관내 발달장애인센터 등 사회적약자와 비장애인 대상 8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디지털 평등을 지향하기 위해 체험과 전시 모두 한 공간에서 진행

됐다.

오전 10시 순봇 성과보고회를 시작으로 로봇 시연회와 체험행사가 이어졌다. 4차산업 기술을 활용한 VR, AR, 체감게임, 드론 조작과 자율주행로봇, 군무로봇, 행정 드론 전시 등 체험행사가 열렸다. 로봇이 직접 솜사탕을 만들어 주고 자율주행로봇 ‘크루저’ 이름을 시민이 정하는 공모전도 함께 추진됐다.

‘순봇’을 활용한 정서로봇 체험반이 가장 인기가 있었고 로봇이 만들어 주는 솜사탕 코너에 시민이 몰려 할때 장사진을 이루기도 했다. 순천=배서준기자

순봇을 활용해 사업을 펼치고 있는 전남동부권발달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 이용객이 제작한 마스크를 현장에서 직접 배부하는 등 따뜻한 나눔의 동행도 실천했다.

한편 순천시는 지난해 정서로봇 실증, 로봇 세미나·아카데미 이어 올해 순봇 체험회 성과를 기반으로 오는 3월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2023 사회적약자편익지원사업에 응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사회적약자 로봇복지특화센터 전략 수립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순천=배서준기자

순천시, 정원박람회기간 불법 상행위 단속

박람회 종료까지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기간 동안 잡상인 등 불법 상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이 펼쳐진다.

19일 순천시에 따르면 D-40인 오는 20일부터 박람회가 종료되는 10월31일까지 254일간을 ‘2023 정원박람회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박람회 주변에서의 불법 노점상(차량 이용·포차 포함), 가방이나 카트를 활용한 영업 행위, 단체관광버스 내에서 영업 행위를 금지한다.

주요 단속지역은 박람회장을 비롯해 오전 저류지 광장 주변 도로, 동천 일원(출렁다리~풍덕교, 벚꽃 개화 시는 용당교까지)과 주변 도로, 경관정원(풍덕들·연향들·해룡들), 주차장(박람회장 내·임시주차장·연향들 주차장·가든마켓주차장·스포츠센터 주차장), 연향3지구 완충녹지, 순천만습지 주차장 및 여성길 등이다.

시는 박람회 개최 전부터 불법 상행위에 강력 대응한 이유로 벚꽃 시즌과 박람회 특수를 노린 잡상인들이 자리를 선점하는 것을 원천 봉쇄하고 관람객 안전과

보행권 확보 등을 꾀했다.

박람회장에도 도심으로 확대되고 경관정원이 조성되면서 인파들이 몰릴 것에 대비해 품격 높은 도시 이미지를 갖추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세금을 내지 않는 기업형 노점상들로부터 지역 상권을 보호하고 도심 내로 관람객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사전계도, 집중 단속, 상시 단속 단계로 나눠 단속기간을 운영하고 1일 평균 193명의 인력을 투입한다.

위반행위 발견 시 사전계고와 자율정비 절차를 거치며 자율정비 불이행시 강제 수거 조치 등 경찰과 함께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예정이다. 순천=배서준기자

여수시 ‘여성친화도시’ 현판식 2023~2027년 친화도시 지정

여수시가 ‘시민이 행복한 양성평등도시 여수’ 구현을 위한 현판식을 가졌다.

19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16일 시청 정문에서 여성친화도시 지정에 따른 현판식이 진행됐다.

행사는 정기명 여수시장, 환경복지위원장 민덕희의원, 이현영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장과 단원들, 권영남 여수시여성단체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시는 지난해 말 여성가족부로부터 양성평등 성과와 계획의 지속가능성을 인정받아 2023년~2027년까지 5년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 확대 △여성친화기업 선정 및 지원 확대 △여성안심프로젝트 운영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운영 등 여수시 특성을 반영한 양성평등 정책 추진에 나선다.

여수시는 여성가족부의 컨설팅 지원 사업을 통해 공무원과 시민들에게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직원들의 실무능력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계기로 평등한 일자리가 보장되고, 안심하고 누리며, 일과 생활이 있는 돌봄 도시를 조성해 모두가 살기 좋고 행복한 여수 만들기에 더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2015년~2019년까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했으며 여성친화도시로 세번째 지정됐다.

여수=이경기기자